

오순절 후 열아홉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9<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양 Praise	“빛 되신 주” “호산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찬양팀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출애굽기(Exodus) 17:1-7</b>	금종각 집사
찬양 Anthem	“너를 지키시길 원하네”	찬양대
영어 설교 English Sermon	“ <b>Is God With Us Or Not?</b> ”	Pastor Will Purushotham
한어 설교 Korean Sermon	“ <b>맛사와 므리바라 불렀으나</b> ” (Called the Place Massah and Meribah)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헌 Offerings		다같이
*송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고, 근신하여 기도하지도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좇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자리잡은 죄성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4:7-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 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다라’ (개역개정 **출17:7**)  
 “And he called the place Massah and Meribah because the Israelites quarreled and because they tested the LORD saying, ‘Is the LORD among us or not?’ ” (NIV Exodus 17: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16 (주일)	10/17 (월)	10/18 (화)	10/19 (수)	10/20 (목)	10/21 (금)	10/22 (토)
본문	왕상19	왕상20	왕상21	왕상22	왕하1	왕하2	왕하3
	살전2 단1	살전3 단2	살전4 단3	살전5 단4	살후1 단5	살후2 단6	살후3 단7
	시105	시106	시107	시108,109	시110,111	시112,113	시114,11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0/19수 오후730)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일15-10)
토요 새벽기도회(10/22토 오전630)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98:1-9)

지난 주일(10/9)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1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하신 양식이라” (출 16:1-20)

메마른 광야 가운데 안식처와 같았던 엘림을 떠나, 시내산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이르게 된 때는 정확히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시기로 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이미 바닥이 났고,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 정도의 결핍과 부족함이 아닌, 생명의 위협을 주는 아주 큰 결핍과 부족함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오늘 본문에는 (유독) “원망”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27,89,12절)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진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원망의 행진도 함께 지속되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광야의 식탁(만나와 메추라기)을 배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메시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1)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은혜)는 매일같이 거두는 일용할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2)둘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며, (마지막) 3)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지만, (마치) 밖에 나가서 만사를 거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거두는 자들이 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였습니다.

설/교/ 메/모